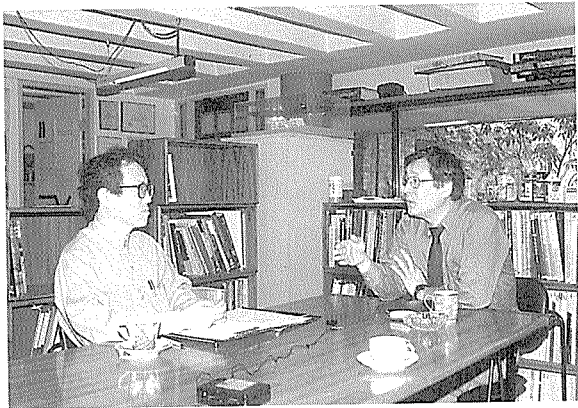


이 시대, 주거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

This Era's Question of Generality in Housing Architecture

대담자 / 손기찬(건축사사무소 동이)
 설계자 / 송광섭(한 건축사사무소 / 인하대 건축과 겸임교수)
 by Sohn Kee-Chan VS. Song Kwang-Sub
 일 시 / 98. 4. 15(수) 오전 10:00
 장 소 / 한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대담광경(좌: 손기찬, 우: 송광섭)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끝없는 생존양식을 위해 많은 건축행위를 필요로 하고, 그 중 주택은 인간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담고 있어 건축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 문화적인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개개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자기자신의 주거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주의와 물신주의에 힘입어 주택을 개인과 도시의 존재양식으로서가 아니라, 급조된 사회적 신분과 끝없는 소비적인 소유가치로서 존재하게 하였다. 건축가 송광섭,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많은 주택건축작업을 해 온 그에게 최근 작품인 일산 장항동 822에서 그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주택의 사회적 보편성에 대해 물음으로서, 한번은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서 대담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손기찬 '주택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며, 하나의 소유주이다' 라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건축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자신이 설계한 주택을 통하여 건축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대상이 된 작품이 일산의 한 주택이지만 그 주택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통하여 나온 것이라 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서든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방식에서든, 최근 주택의 흐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송광섭 60, 70년대에 지어졌던 주거는 격동기를 겪으면서 부족함을 메우는 기능적인 해결이나 간단한 시공상의 해법으로 지어진 실리적인 주거였고, 80년대 들어서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전 시대의 바탕에 의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80년대, 90년대는 주

택이 건축가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근래 건축하는 분들도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고 실용적인 집을 많이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생활에 비춰 본다면 그렇게 설계된 집이 건축적이라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선 건축가 스스로 자기도취나 성취감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택은 사용자에게 쉽게 사용되고 편안해야 하며, 집이 부담되거나 집에 구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은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건축주가 끼워 맞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요즘 짓는 주택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 같은 성격이 짙은 것 같아요. 집이 사람을 정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공유할 수 없는 특이한 공간이 되어 주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괴리감을 갖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으면서, 건축가가 사용자에게 한 두 가지 정도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건축적인 공간만을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손기찬 듣고 보니, 주택의 접근의도가 편해 보이는데요. 송소장님의 작업과정이 건축가적인 작품이라기 보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반포 P씨주택은 참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83년 준공되어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 주택의 전형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지만 정원이 있고, 긴 처마가 있고, 온실을 채택하는 등 외부 자연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인데, 반면에 논현동 주택이나 최근의 빌라들은 상당히 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건축가의 의지인지 아니면 사회적 인 여건에 의한 것인지요.

송광섭 두 가지 요인 다겠지요. 먼저

반포 P씨주택을 보면 마당을 마당같이 써 보자는 생각과 온실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것은 평면을 구성하다 보면 집이 너무 기능적이고 삭막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서였습니다. 통로과정이나 중간과정에서의 변화는 여허가 더 풍부해질 것이고, 나머지 개체들이 비교적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논현동주택과 빌라는 실리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앞서 말한 주택은 건축주가 자신이 살려고 지었던 집이고 후자는 상업성을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손기찬 _____ 오늘날의 주거는 도시화되고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공간보다 많은 내부공간이 요구됩니다. 송소장님 같은 경우 중간과정공간, 즉 마당을 설정하셨는데 사실은 마당이라면 생활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이여야 하는데, 전통적인 마당의 여허를 쓰기에는 그 중간과정이라는 것이 다분히 시각적인 정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명수동 빌라의 마당은 여유가 있었는데 논현동이나 가회동주택에서는 마당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인 정원의 효과 이상의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광섭 _____ 마당의 기능은 다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단독주택이나 도시주택의 마당이라는 것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마당이 시각적인 기능을 가진 '보는 마당' - 일본의 경우처럼 - 하면 우리의 마당은 대부분이 생활이 혼재된 기능이 많습니다. 일부 극단화시켜서 공간을 비워 놓은 경우도 건축적인 컨셉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옛 건축에서 보듯이 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 집은 그것으



반포동 P씨 주택

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속박을 주게 됩니다. 집은 가족과 생활하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 엮어 주느냐의 문제이고,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즐길 수 없을 때나 의도적인 공간이 무엇인가가 불편하다든지(대부분 건축주가 끌려 살게 되는 경우) 하면 그러한 집은 결국 좋은 집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분명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며, 시간이 지나도 새롭고 또 제삼자의 삶의 방식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 변화가 급격히 변하여 5년이나 10년이면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특수해로 얘기하면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납득할 공통분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주택의 보편적인 기능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의 이야기 방향에 좋은 전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설계해서 완결성이 높은 공간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완결성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설계된 형태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광섭 _____ 저도 건축가가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들만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건축 의도를 공간화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있어 건축가의 완성도, 성취감이 높을수록 건축주에게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축주에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유라는 말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건축주가 참여하여 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준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완벽한 공간을 제안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주가 원하는 가구를 놓고 싶어도 쉽게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자의가 아닌 남을 의식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집의 생활은 자기 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건축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완결성이 아니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쉽게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런 여러 가지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면 형태나, 작품에 가까운 작업보다는 생활양식 또는 재료,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테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주거는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나 공법이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축가의 폭넓은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송광섭 _____ 요즘 유행같이 지어지는 주택들은 사실 우리 나라의 기후에 못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장마철 1200밀리의 폭우나, 겨울 혹한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할 주택이 우리 나라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우리의 기후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게 된다면 그 집은 2, 3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디테일을 나름대로 해결한다 해도 사계절의 온도변화가 거의 40~50도에 가까운데 거기에 견디는 재료는 없습니다. 우리 옛 집을 보면 초가집이든, 한옥이든 처마가 있어 빗물이 벽에 직접 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자연에 대한 지혜지요. 이런 지혜를 우리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너무 쉽게 간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면 그것이 공공건물이나 오피스빌딩이면 관리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관리자는 건축주 자신입니다.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집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불만족인 셈이지요.

손기찬 _____ 개인적으로 주택이 전체 건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체들이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발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가의 참여의식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물이 5%정도라는 믿을 만한 추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집장사들이 짓는 집은 사실은 건축가의 간접적인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앞장서서 가는 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뒤따라가는 집장사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의식하든 안하든 영세한 집장사들이 건축가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송광섭 _____ 네. 맞는 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장사들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집장사들의 집들은 쉽게 공사함에도 거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을 지으면서 하자에 대한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있으면서 공사비는 싸입니다. 그들은 집을 팔 생각으로 짓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의 생각과 시대적 요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나 건축가들은 그것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지은 대부분의 주택들은 기호성도 적고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이 되고, 시공이 완성도 면에서 설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에 강남일대에 똑같은 재료, 똑같은 지붕으로 통일되어 지어진 집장사들이 지은 집들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공통된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 지어진 집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고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가가 주택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공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서 집장사에게 배울 게 있다는 것은 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설계로서 끝나지 않고 시공 내지 사용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송소장님은 건축가의 시공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광섭 _____ 건축주가 동의한다면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생각을 잘 따라 줄 시공자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공비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도 있고, 건축주의 오해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시공의 완성도 면에선 비교적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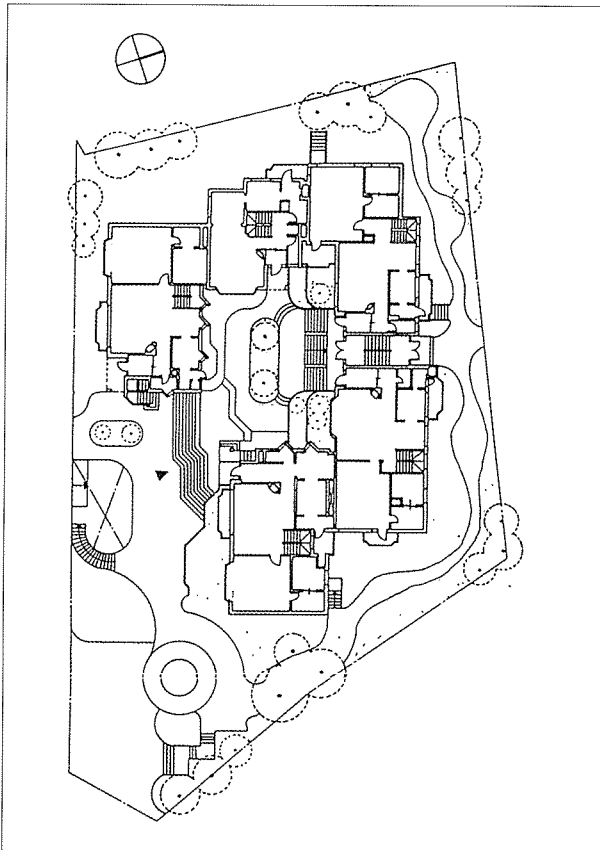
손기찬 _____ 원시시대부터 주거라는 것이 - 하이데거는 주거 자체가 우리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 사실은 존재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동참여하고 사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전문가가 생겨나고, 더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사용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버렸는데, 일부 농촌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자기가 간단한 작업에는 직접 참여도 하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송광섭 _____ 주택에 있어서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은 공간을 채우는 가족간의 공동작업에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좋은 가족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까이 집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을 즐겨워하는 건축주가 있는 반면, 요즘 아파트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일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건축주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직영공사 정도이며, 건축물의 부분적 참여는 건축재료의 비규격화와 반제품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기찬 _____ 이제 일산으로 들어가 보면, 신도시 개발형태의 모범적인 주택단지가 일산 전원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범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하나

의 유형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단독주택 단지에서 그 많은 다양한 외관과 마감, 자재에서 보편적인 해를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단지계획을 해서 만들고 어떤 디자인크리테리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주택의 정주성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다분히 가설무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서부의 활기 있는 곳에서도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세계적이고 괄목할 만한 주택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곡동 주택단지라든지 개봉동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국민 주택유형들이 비슷한 형태로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좋다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통일, 반복, 질서의 반복이랄까 이런 것들인지...

송광섭 _____ 일산의 도시계획지침은 비교적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가가 할 세부지침까지 나와 있지만 요즘은 변질되어 갑자기 집들이 전시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편승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문화를 받아들일 때 너무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불특정 단위의 통일된 어휘의 집을 제안하는 것



명수대 S빌라

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필지를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각자 기호와 생각,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간에 혼재되어 버린 것입니다. 관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도시계획과 통일된 것만 심의 해 준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온전한 심의가 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애초에 의도한 일산의 도시계획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를 만든 개념이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애초 취지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 규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면 질서 있게 그룹핑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유형에서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느 건축가, 설계집단, 어느 회사 등 절제된 공통분모를 가지고 선택하게 했다면 좀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런 책임이 정책일 수 있고 아니면 집장사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가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분명 건축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송광섭 _____ 건축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산에 개개의 땅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내 개인의 재산으로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아 건축주의 사고가 사회 전체를 생각할 만큼 여유 있진 않습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어때' 라는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건축가의 역할이 의심스러워지고, 건축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건축주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건축주를 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송광섭 _____ 건축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의도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주가 편하게 살아가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이고, 또 건축가가 읽어야 할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규사항이 제한하는 것이 모순도 있지만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읽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손기찬 _____ 일산의 도시계획의 처음 의도는 공동체로 단지계획을 해서 공동의 주차공간을 둔다든지, 물을 만들다든지 하는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바슬라르는 집을 소유주라고 했는데, 소유주라는 의미는 사실 전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에 보면 개체만 있고 도시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집과 도시와의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 지어진 동네보다 나중에 지어진 동네에서 두드러지는데, 일산에 세 채의 주택을 설계하시면서 길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지요.

송광섭 _____ 건축가가 물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겠죠. 건축주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분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가는 단지 상황을 충분히 읽고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과의 관계 설정은 이렇습니다. 일산주택단지는 담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정서는 담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경계선을 그어 봐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벽 자체가 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투리 공간은 길과 연계하여 마을 전체에 할애해 주는 공간으로 해석했고, 건물 내에 있는 통로공간과 연계시켜 변화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런데 일산에서는 도시의 기존 주택과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 버렸는데 담이 없다는 것이 큰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반포 P씨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담을 높이 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담이 없는 것은 대문이 경계가 아니라 현관문이 경계고 외벽이 경계니까 그 앞의 정원은 개방될 수 있고 또 공공에게 시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문이 틀림없이 경계선까지 와야 합니다. 실제로도 일산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중간한 정원이 된 것 같은데...

송광섭 _____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연결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곳에선 어차피 공개된 장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약간의 레벨 차와 사적인 영역 표시만 가능하다면, 건축적 해결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원은 내부에서 접근하든가 또는 통과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중간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미국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개방되었지만 사적인 뒷마당이 있어서 괜찮은데 일산 같은 경우 대부분이 개방되어 버린 것 같고, 집을 외벽으로 막는 방법은 유럽의 전통적인 거리의 경우 담이 없이 마당이 할애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중정이 있고 외벽이 도로에 면하면서 상가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골목이 모두 외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광섭 _____ 외벽의 역할이 서양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는 방어적 기능을 갖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차피 50% 건폐율에 선 마당 같은 공지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처럼 길과의 관계가 건물과 길로 뚜렷하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단지는 골목화가 되지는 않겠죠.

손기찬 _____ 그런 점에서 보면 장항동은 발전된 안으로 보여지는데 전면 외부공간에 할애되는 현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서 사적인 넓은 공간인데 어쨌든 이유가 주차를 2대 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공간으로 의도하신 것인가요.

송광섭 _____ 네 그렇습니다. 그 마당이 지금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간은 주로 밤시간대입니다. 낮에는 그곳을 정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녹색공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잔디를 깔면 잔디가 죽게 되기 때문에, 느낌은 다르지만 잔디보호용 그린블럭을 깔았습니다. 차가 없는 낮에 아이들이 공놀이를 해도 잔디는 부분적으로 살아나죠. 주차 공간을 낮시간과 밤시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첫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서처럼 주택을 가진다는 의미가 정원, 마당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다면 그 정원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용한다는 의미는 내부 공간, 또는 안방과 관계되어 있는데 지하실 같은 경우 드라이에어리어로 마

당과 차단되어 있고 그 마당에 담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길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용 면에서 보면 오히려 바깥에서 보기 위한 마당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송광섭 _____ 그 마당은 내부 계단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방 식당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개를 키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잔디를 밟을 수도 있고, 야외 식사공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외부의 길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적 마당의 성격이 강하고, 외적으로도 정돈된 마당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건축가가 생활의 그릇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개성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송광섭 _____ 생활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건축주가 바뀌는 상황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일산의 주택들이 그렇게 다양해 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다를 정도로 다양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송광섭 _____ 사용자의 생활 습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집의 향, 기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세 채의 집들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와 제가 좀 더 집요하게 생각했던 경우는 일상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논현동 L씨 주택

세 번째 집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적은 공사비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가가 완성도가 있는 집을 의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비교적 그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고, 건축주 자신이 좀 즐거울 수 있는 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해졌지만, 보편성과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건축가는 일정 공사비 이상의 주택의 경우만 좋은 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이면서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집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송광섭 _____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좋은 집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용이 풍부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공사비에 맞는 공간형식, 재료를 선정해 주면 건축주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 승낙합니다. 생활을 담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 따라 건축가의 제한된 의도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이겠지요.

손기찬 _____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건축가에게 하이코스트의 좋은 여건으로 주택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보기 위한,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주택이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건축가가 설계한 집은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일반인들에게는 거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송광섭 _____ 그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가가 공사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하이코스트라고 해서 건축물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주택은 보기 위한 오브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통용될 수 공사비는 책정되어야 합니다. 건축가가 예산보다 많이 드는 설계를 한다면 건축주는 부담이 됩니다. 건축가가 작품으로만 의식하면 종종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고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러면 일산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송소장님께서 설계한 집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송광섭 _____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쉽게 승낙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와 재료, 공간의 연결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83년 반포 P씨주택 설계 후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재료나 형태, 볼트의 채용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는 사회적 상황이 변한 데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가 다르듯 일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상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송광섭 _____ 에, 다릅니다. 제가 경험이나 공부로 얻은 것도 있지만 집이 다른 시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제가 설계한 주택에서 보면 공간이나 형태가 외형적인 것이 고작이었는데, 근래 일산에 세 채의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과정적인 순환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한 울타리로 엮어 놓았지만, 각 개체인 방을 연결해 보면 서로 다름에 따라 가족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처럼 구획된 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까이 지 어떤 과정이나 생각,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시각적 변화와 함께 사계절의 기후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시각적 변화는 내면의 생활에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에 있어서 생활을 담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장항동같은 경우 과정공간을 의식하여 개체와 개체를 연결시켜 주다 보면 실이 너무 고정되어 융통성이 없어져서 그것이 실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가변성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 주택의 중심개념을 설명해 주시지요.

송광섭 _____ 가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장항동 주택의 외피는 북서풍에 대한 고려와 주택의 방어적 속성이 고려된 것입니다. 외부공간의 형식은 아까 얘기한 용도의 일상적 미당과 현관 입구의 레벨을 달리한 반 공개된 포치가 있고, 식당과 연계된 텃마루 같은 썸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하늘로 열린 테라스가 있습니다. 현관과 연계된 계단실은 이 집의 중심이며 이동하면서 가지는 방향성과 시선의 변화, 외부풍경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내부화 된

길의 시작입니다. 이 집의 가변성은 식물의 자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각 개별적 외부공간은 정형화된 개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앞으로 일산 단지가 완성되었을 때 주택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일산 단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지금의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송광섭 _____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혼재스러운 상황이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어차피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포이동같은 경우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부수고 다시 짓게 되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일상적인 모습과 보편성이 무시되어선 안 되겠지만, 전체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손기찬 _____ 찰스무어 같은 건축가는 이론적이거나 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많은 주택설계를 해 왔고 그것을 주택의 선택의 문제로까지 정리하였는데, 송소장님께서 '주택은 이래야 한다' 라고 압축시켜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송광섭 _____ 결국 주택은 건축주에게 참여하는 즐거움을 줘야 해요. 생활을 담게 해 주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고요. 그 집에 사는 이가 그 집의 작은 요소에서도 감격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의 켄가 묻어 가면서 사용자가 새로움을 가진다면 좋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이것을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형태가 독특하거나, 튀는 생각, 새로운 제한,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건축가가 실험적인 것을 도외시하면 안되겠죠. 여건에 따라 탄력있게 제



논현동 한우리 빌라

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지어졌을 때 주변 사람 대부분에게 '그 집 참 느낌이 좋다' 라고 이야기된다면 더 좋겠죠.

손기찬 _____ 그렇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나 공간에 대한 연구에 의한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실제 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려면 내부의 구성, 물리적 요소, 건축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송광섭 _____ 물론입니다. 설계 전 꼭 그들의 생활 습관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간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의 반영과 조그마한 장치를 해주면, 그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공간을 즐긴다는 것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일상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수층이나 건축가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사실은 건축가가 주택설계 시 너무 건축화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건축가가 폭넓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 하는데 이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가의 범위랄까, 가구까지 디자인하여 주택의 완결성을 높임이 바람직한 것인지...

송광섭 _____ 우리는 너무 문제점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생활을 봤는가', '생활해 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활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건축가가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건축가적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진짜 건축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그들에게 여지를 준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생활의 범위나 가구의 디자인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심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주택의 실용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반대로 주택을 많이 하셨는데 책임을 느끼는 입장에서 반성적인 주택에 대한 시각은...

송광섭 _____ 설계를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들이 집을 지으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대부분의 건축가가 느끼는 것이겠지만, 건축적 개념, 시공의 완성도가 떨어질 때 아쉬움이 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감대를 갖는 공간, 공용의 공간, 매개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거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적 자기 언어를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 어떤 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개념을 너무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반성도 있습니다.

*일산 단독 주택 단지의 그 다양한 주택형상 만
크이나 긴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건축가의 설계라는 것이 어느
주어진 시기의 건축 활동 중에서 극히 일부의, 때로는 무의미한
부분을 대변해 왔다는 사실만큼이나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사
회적 병리 현상에 휩싸여 떠밀려 가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일산 주택단지는 이 시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스를 수 없는 공
사적인 유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부분의
역할을 맡아왔고, 또한 주거의 정체성과 주택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에 계속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또한 방치된 유적지에 대
해 통시적인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산 주택군